

# 20세기 사람들의 자유와 덕성

홍종욱\*

[서평] 장문석(2023), 『토리노 멜랑콜리』,  
문학과지성사, 252쪽

## 1. 20세기의 멜랑콜리

20세기는 산업과 혁명의 시대였다. 컨베이어 벨트로 상징되는 미국의 포드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대중 사회를 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와중에 일어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은 대중의 진출을 상징했다. 미국과 소련에서 불어온 산업과 혁명의 새바람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했다.

1920~1930년대에는 파시즘의 광풍이 불었고 이에 맞서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형성되었다. 파시즘은 단순한 자본주의가 아니었고 반파시즘도 공산주의로 수렴되지 않는 무언가였다. 민족, 문명, 인간을 지키려는 노력이 반파시즘 인민전선으로 모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노동운동의 성장 속에 복지국가가 도래했지만, 이윽고 포스트 포디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20세기는 막을 내렸다.

『토리노 멜랑콜리』는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토리노에서 벌어진 산업과 혁명,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다뤘다. 중세 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가 문맹자에게 성경을 형상화했다면, 토리노는 세계인에게 근대성을 보여 주는 20세기의 스테인드글라스였다(p. 25). 산업과 혁명은 진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아니다. 토리노의 20세기를 가꿔낸 것은 토리노의 거리와 사람들이었다.

주세페 레비와 그 가족은 반파시스트 활동가를 지원했다. 주세페의 딸 나탈리아는 레오네 긴츠부르크와 결혼했다. 레오네는 오테사 출신 유대인으로 비타협적인 반파시스트 운동 단체인 ‘정의와 자유’ 토리노 지부 책임자였다. 나탈리아와 레오네의 장남이 미시사의 걸작 『치즈와 구더기』를 쓴 카를로 긴츠부르크다.

이탈리아에 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한 장본인인 파베세는 에이나우디 출판사 편집자를 지낸 토리노의 중요한 상징적 지성이다. 재일조선인 작가 서경식의 에세이를 통해 잘 알려진 프리모 레비는 아우슈비츠 생존자로 토리노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프리모 레비의 삶과 죽음을 지켜본 레 움베르토 거리는 나탈리아 레비 가족이 살았고, 나탈리아와 파베세가 만나 우정을 나눈 에이나우디 출판사가 있던 곳이다.

나탈리아 긴츠부르크는 “우리의 도시는 본성상 멜랑콜리하다”고 말했다(p. 9). 죽음과 삶, 멜랑콜리와 유머가 기이하게 교차하는 토리노의 거리에서 어떤 덕성들이 나타났나(p. 14). 자유주의자 고베티와 공산주의자 그람시는 토리노의 반파시즘 인민전선에서 함께했다. 이 책은 토리노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난 덕성과 자유를 다룬다. 이 책은 격렬한 사회적 갈등과 진지한 도덕적 성장이 대위법을 이루면서 전개된 한 도시의 20세기를 그려 냈다(pp. 16-17).

여기서 자연스레 우리의 20세기를 떠올리게 된다.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3·1운동은 한국의 20세기를 밝힌 등불이었다. 3·1운동의 배경으로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레닌의 러시아 혁명이 꼽힌다. 한국의 20세기 역시 세계와 하나였다.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끈질기게 이어졌고 반파시즘 인민전선도 토리노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혹독한 식민통치도 모자라 냉전과 군부독재가 이어졌지만, 인간성 회복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1910년대 토리노의 총파업과

자본의 대응에서는 1929년 원산 총파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토리노의 1970년대는 1980년대 말 이후 울산의 노동자 대투쟁과 겹친다. 그리고 토리노도 울산도 이제는 다른 곳이 되었다. 토리노 멜랑콜리에서 한국 사회가 겪어온 장면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우리 또한 20세기 사람인 탓이다.

## 2. 산업과 혁명의 도시 토리노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프롤로그는 먼저 토리노의 민족주의 전통을 언급한다. 토리노는 19세기 이탈리아 리소르지멘토, 즉 민족 부흥 운동의 정치적 중심지였다. 1861년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선포되었을 때 토리노는 이탈리아의 첫 수도였다. 토리노는 이탈리아의 애국심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심을 대표하는 공간이었다. 19세기 토리노는 민족의 길들이 만나는 교차점으로서, 조국들의 조국이었다.

다음으로 피아트 ‘회사-도시’(company-town)로서의 토리노다. 시골 지주이자 기병 장교 출신인 아넬리가 1899년 자동차 회사 피아트(FIAT)를 설립했다. FIAT의 T는 토리노다. 공장이 들어서자 집단적 자기 해방을 추구하는 ‘노동자’가 형성되었다. 기업과 노동운동이라는 근대적 현상을 토리노는 순수한 이념형으로 보여 주었다. 민족주의 전통 위에 회사-도시가 자리 잡음으로써 토리노의 현대가 시작된 셈이다.

[제1장 이탈리아의 디트로이트, 이탈리아의 페트로그라드] 제1장은 대략 1920년대까지의 20세기 초반을 다룬다. 토리노는 혁명이 있는 디트로이트이자 산업이 있는 페트로그라드였다. 미국 예찬론자 아넬리의 구호는 “포드처럼 하자”였다. 포드와 아넬리는 모두 귀족적이지 않은 대중적 감성과 본능을 지녔다. 피아트는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켰다. 이러한 자가 금융과 가족 기업의 전통은 피아트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1900년 토리노에서 역사상 최초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1910년경에는 노동회의소가 58개의 노동조합을 대표했다. 사용자들도 조직화됐다. 1906년 토리노의 산업동맹은 전국적 사용자 단체인 콘핀두스트리아의 모체가 되었다. 20세기 초 토리노는 계급투쟁, 특히 기업가의 계급투쟁을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가도 많았지만 아넬리는 노조 지도자와 협상을 선호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당초 이탈리아 정부는 중립을 지켰으나 강렬한 민족주의 열풍에 밀려 1915년 봄에 공식 참전한다. 아넬리는 중립론자였으나 전쟁은 피아트에 도약대가 되었다. 피아트는 군용 트럭 등을 생산해 전시경제로부터 거대한 이익을 얻었고 토리노는 피아트의 독점적인 기업도시가 되었다.

1917년 8월 폭동은 전쟁이 생산성뿐만 아니라 노동의 전투성도 증대시켰음을 보여 줬다. 살해된 혁명 지도자 룩셈부르크를 추모하는 총파업이 1919년 6월 토리노에서 일어나 약 2만 명의 행렬이 경찰과 충돌했다. 토리노는 이탈리아의 ‘붉은 2년’(1919~1921)의 진앙지였다. 그람시와 톨리아티가 토리노의 운동을 이끌었다. 러시아의 소비에트에 해당하는 공장평의회 운동이 거셌다. 공장평의회에서 통용되던 구호 “러시아처럼 하자”는 아넬리가 내건 “포드처럼 하자”와 거꾸로 짝을 이뤘다.

아넬리는 ‘붉은 2년’ 속에 사임했지만, 노동자와 직원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복귀했다. 아넬리는 질서와 권위의 체제를 확립했다. 1923년 토리노 교외 링고토에 포드를 본뜬 거대한 공장이 들어섰다. 링고토 공장은 질서의 원리를 구현했다. 링고토는 파업에 대한 대응 이전에, 원천적으로 노동을 조직화하는 자본의 계급투쟁을 상징한다. 공장의 이념형인 링고토는 토리노의 젊은 사회주의자가 추구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델이기도 했다.

[제2장 멜랑콜리어 안녕] 제2장은 파시즘과 반파시즘의 시대를 다뤘다. 흔히 농촌 파시즘과 도시 파시즘을 구분하지만, 무솔리니의 정치적 고향인 밀라노 파시즘과 이곳 토리노의 파시즘도 대조적이었다. 무솔리니는 피아트

의 미국적 생산 방식과 비교해 밀라노 알파로메오의 라틴적 생산 방식을 지켜세웠다. 파시즘 집권 20년 동안 토리노는 늘 주변부였다. 파시스트에게 토리노는 전체주의적 프로젝트를 위해 정복해야 할 목표였다.

토리노의 기업가는 ‘붉은 2년’을 파시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수습했다. 한편 파시스트 노동조합은 아넬리가 공산주의자 노동운동가와 타협한다고 비판했다. 무솔리니는 피아트가 교회처럼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진다고 격노했다. 아넬리와 피아트 경영진은 기업의 국제적·민족적 존재감과 토리노라는 도시의 지리적·정치적 고립성을 활용하여 파시스트 체제에서 작지만 분명한 독립 공간을 확보했다.

1936년 피아트는 무솔리니도 극찬한 대중을 위한 자동차 ‘토폴리노’를 생산했다. 아넬리의 포드주의적 집념이 만들어 낸 결실이자, 피아트가 새로운 유형의 소비, 더욱 대중적인 자동차 시장을 겨냥하여 야심적으로 출시한 작품이었다. 1939년에는 새로운 공장이자 거대한 근대 도시 미라피오리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개장식을 찾은 무솔리니를 노동자들은 침묵으로 맞았다. 토리노는 반파시즘의 도시였다.

고베티는 토리노의 반파시즘 운동을 상징한다. 고베티는 그람시 그룹에 자극을 받아 1922년에 새로운 저널 『자유주의 혁명』을 창간했다. 자유주의자-공산주의자인 고베티는 자유주의 혁명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토리노의 ‘노동귀족’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맡겼다. 고베티에게 그람시와 같은 혁명적 지식인은 공산주의자라기보다 자유주의 혁명의 대의에 동참하는 민족적이고 해방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동지들이었다.

반파시즘은 비루한 현실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정신적 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토리노 대학은 19세기 리소르지멘토의 추진력을 제공한 도시의 대학답게 애국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전통을 이어 갔다. 1933년의 토리노 공산주의자의 보고서는 “이 순간 파시즘에 대한 양심적 반대가 토리노 프롤레타리아보다는 일부 소부르주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라고 적었다.

[제3장 가난한 자의 포드주의] 제3장은 전쟁과 전후 냉전을 다뤘다. 1942년 6월에 공식 창당한 행동당은 1930년대 중반까지 반파시즘 운동을 이끈 ‘정의와 자유’의 계승자였다. 행동당이라는 명칭은 리소르지멘토의 급진과 지도자였던 마치니가 설립한 조직에서 유래했다. 토리노의 행동당원은 전체주의 국가의 해독제로서 소비에트 국가 모델과 유사한 “평의회 국가”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람시의 영향이 느껴진다. 행동당원에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단순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도덕적 전망이었다.

전후 찾아온 냉전 속에 기민당과 공산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동당은 어려움에 빠진다. 다만 이탈리아에는 냉전이라는 전선 외에 파시즘 대 반파시즘이라는 또 하나의 전선이 존재했다. 1930년대 에이나우디 출판사는 토리노 지식인의 반파시즘 근거지였다. 1935년부터 기획한 역사문화 도서관 시리즈는 고베티적 역사인식의 총화였다. 전후에도 에이나우디는 공산당의 새로운 경전이 될 그람시의 수고를 출간했다. 에이나우디는 토리노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공산당 사이의 문화적 동맹의 매개체였다.

1957년 이탈리아 경제 기적의 상징인 ‘피아트 500’ 모델이 나왔다. 창업자 아넬리의 꿈인 자동차 대중화의 완벽한 실현이자 당시 피아트를 이끈 발레타식 민족적 생산주의 모델의 성과였다. 발레타는 반공주의자이자 포폴리즘적 민족주의자였지만 이탈리아의 상대적 후진성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을 가졌다. 1960년대 중반 피아트는 소련에 거대한 공장-도시 톨리아티그라드를 세웠다. 발레타가 생각하는 민족과 민중, 노동과 생산을 강조하는 후발국 개발 이데올로기의 구현이었다.

[제4장 내 생애 최고의 해] 1969년 토리노 총파업은 ‘뜨거운 가을’로 불린다. 직장위원과 이들로 구성된 공장평의회는 기성 노조 단체에 종속된 내부위원을 공격했다. 피아트 노동자 사이의 위계적 관계는 순식간에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다. 남부 이주자들이 대거 들어왔지만, 이탈리아어와 민족문화를 공유한다는 이점을 누리면서 빠르게 융합했다. 토리노의 강력한 탈권위

주의적 학생운동 역시 노동자 급진화에 기여했다.

‘뜨거운 가을’ 이래 10년 동안 공장들은 일종의 해방구가 되어 경영진과 공장평의회가 공존하는 이중권력 상태가 지속되었다. 공장은 투쟁의 대학이었다. 경영진은 노동자와 교섭을 지속하는 온건책을 펴는 한편, 로봇을 활용하면서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에서 포스트-포드주의적 유연 생산 체제로 이행했다. 1979년 파업에서 경영진은 토리노 시민의 지지를 얻어 노동운동을 무력화했다.

계급이나 국민 같은 전통적인 개념 대신 민족 영토와 국가 주권에서 절단된 물티투도 즉 다중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다중은 지방주의와 포폴리즘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

### 3. 20세기의 삶과 연대

20세기 연구가 필요하다. 예전에 교토대학 문학부에 설치된 ‘현대사학’ 전공을 보고 흥미롭다고 느꼈다. 서양사, 동양사, 일본사와 별도로 설치된 지역 횡단적인 현대사 전공인데, 이 연구실에서 내는 학술지 제목은 『20세기 연구』다. 참신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20세기 세계사와 연관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 왔다. 이탈리아 근현대사를 다룬 책의 서평을 감히 떠맡은 것도 이러한 평소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 책을 읽고 떠오른 몇몇 단상을 때로는 한국의 역사와 관련 지으며 부연해 보고자 한다.

#### 3.1. 반파시즘 인민전선과 덕성

서경식은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단테의 신곡을 암송함으로써 자신을 키워 준 문화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쓴 프리모 레비를 소개한다. 서경식은

인간은 짐승과 다르기에 노예로 추락하더라도 ‘덕과 지’를 추구한다고 보았다.<sup>1</sup> 또한, 토리노에 돌아온 이후의 프리모 레비에 대해 인간성의 재건을 위해 힘겨운 증언자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했다.<sup>2</sup> 프리모 레비는 에이나우디 출판사에서 책을 냈고, 토리노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을 “피부처럼 자연스러운” 정든 곳이라고 말했다.<sup>3</sup>

프리모 레비가 추구한 덕과 지, 그리고 그가 토리노 거리와 맺은 관계에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심층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토리노 멜랑콜리』는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정치 이데올로기라기보다 자유, 덕성, 지성의 문제임을 말한다. 나탈리아 긴츠부르크는 ‘작은 덕’이 아니라 ‘큰 덕’을 가르쳐야 한다면, “외교술이 아니라 이웃 사랑과 자기부정을, 성공에의 욕망이 아니라 존재와 앎에의 욕망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p. 17).

자유주의자-공산주의자라는 형용모순을 받아들인 고베티는 공산주의자 그림시를 존중했다. 고베티는 “정말로 드물다고밖에 볼 수 없는 성실함과 겸허함”이라는 표현으로 그림시의 도덕적 자질을 칭찬했다.<sup>4</sup> 그림시는 러시아 혁명을 “『자본』에 반대한 혁명”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코뱅적 역사해석과 혁명적 의지주의 철학의 생생한 사례를 제시했다(p. 116). 경제결정론이나 사적 유품론 같은 공산주의 도그마를 벗어난 그림시였기에 고베티와 함께할 수 있었다.

고베티의 사상을 계승한 포아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정치적이기 전에 도덕적 지평의 열림”이며 “정의의 의지”이자 “작은 것들에 머무는 것에 대한 거부”라고 받아들였다(p. 119). 이 책의 저자는 포아의 말에서 나탈리아의 ‘큰 덕’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야 자유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며, 여기가 토리노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나

1 서경식(2006), 박광현 역, 『시대의 증언자 프리모 레비를 찾아서』, 창비, p. 155.

2 서경식(2018), 최재혁 역, 『나의 이탈리아 인문 기행』, 반비, p. 231.

3 서경식(2006), p. 217.

4 서경식(2006), p. 241.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평했다(p. 216).

이 책의 예사롭지 않은 점은 자본가 아넬리에게서도 “등근 네모와 같은 형용모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을 찾아낸 데 있다(p. 212). 그람시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대체하려는 바로 그 문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울였던 일련의 노력을 인식할 수 없다면 결코 획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p. 65). 여기서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 가지무라 히데키가 통렬한 자본주의 비판, 근대 비판을 벌이면서도 “‘근대’가 준 가장 좋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 냄으로써, 그에 대한 마음속 콤플렉스를 불식시켜 가는 것이 나의 과제”<sup>5</sup>라고 밝힌 사실이 떠오른다.

자본과 노동을 가로지르는 토리노의 덕성은 우리에게 어떤 성숙함을 요구한다. 저자는 고베티의 비타협성이 그저 원초적 젊음에서 솟구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멜랑콜리를 극복한 결과로 배어 나왔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혁명의 실패가 멜랑콜리를 낳지만 멜랑콜리의 극복이 혁명의 시작이기도 하다(p. 103).

### 3.2. 민족적 전통과 저항

고베티와 그람시의 접근은 계급적 차원만 아니라 민족적 차원까지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고베티에게 토리노 노동계급의 투쟁은 이탈리아의 민족적·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람시도 공장평의회 운동을 “노동하고 생산하는 새로운 이탈리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았다(p. 89). 그람시는 계급과 사회주의보다는 민족과 국가, “민족적-민중적 블록”을 일차적으로 호명했다(p. 93).

고베티는 파시즘을 “나태하게도 정치투쟁을 회피하고 계급 협력을 민

5 梶村秀樹(1992), 『朝鮮からみた明治維新』(1980), 『梶村秀樹著作集 第1巻 朝鮮史と日本人』, 明石書店, p. 147; 홍종욱(2017), 『일본 지식인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의 발견: 다케우치 요시미와 가지무라 히데키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25, p. 122.

는 민족”의 부산물, 즉 이탈리아 민족의 자화상이라고 표현했다. 고베티의 유명한 “민족의 자서전”으로서의 파시즘이라는 테제다. 이렇다면 진정한 투쟁의 대상은 표면의 무솔리니 정권이 아니라 심연의 “다른 이탈리아”, 즉 “품위 없는 이탈리아”가 된다(p. 86). 반파시즘 운동뿐 아니라 파시즘까지도 민족의 자화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파시즘, 반파시즘이 이탈리아 고유의 무언가라는 주장은 아니다.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이고 저항 역시 그로부터 조직해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실은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제창한 것으로 유명한 코민테른의 1935년 제7차 대회에서 디미트로프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만이 문화의 쇠망을 방지하고 그것을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이며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인 참된 국민문화로서 꽃피우는 최고의 수준까지 드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6</sup> 식민지 조선의 반파시즘 인민전선도 민족과 문화에 대한 강조와 연동했다.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의 지도자 이재유는 검거된 뒤인 1937년에 쓴 글에서 일본이 “조선 특유의 4천 년 역사와 문화, 혈통까지 약탈할 뿐만 아니라 언어, 풍속, 습관까지 동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7</sup>

토리노의 에이나우디 출판사는 1935년부터 역사문화 도서관 시리즈를 기획했다. 고베티적 역사의식의 총화라고 평가되는 이 책은 파시즘에 맞서 이탈리아의 덕과 지를 지키려는 실천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임화, 김태준 등 지식인이 <조선문고>를 기획했다. 제1부는 ‘조선고전’, 제2부는 ‘현대문학’, 제3부는 ‘번역물’로 구성된 문고는 일본 파시즘의 식민통치에 맞서

6 디미트로프, 「파시즘의 공세와 파시즘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의 통일을 추구하는 투쟁에서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임무」(코민테른 제7회 대회 연설), G. M. 디미트로프(1987), 김대건 편역, 『통일전선연구: 반파시즘 통일전선에 대하여』, 거름, p. 148; 홍중욱(2020), 「반파시즘 인민전선론과 사회주의 운동의 식민지적 길」, 『역사와 현실』 118, p. 334.

7 李載裕(1937), 「朝鮮に於ける共產主義運動の特殊性と其の發展の能否」[신주백 편저(1989),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 연구 I: 국내 공산주의운동 자료편』, 새길, 1989], p. 78; 홍중욱(2020), p. 359.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정리하여 저항의 근거로 삼고자 했다.<sup>8</sup>

〈조선문고〉는 중일전쟁 이후 반파시즘을 입에 담을 수도 없던 엄혹한 시절에 벌어진 실천이었다. 어쩌면 무솔리니 통치하의 이탈리아와 비슷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피아트는 토리노에 파시스트 체제에서 작지만 분명한 독립 공간을 확보했다. 일본 통치 아래 한국인에게 그런 공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다만 지식인, 문화인들은 체제 내의 접근전이라는 형태로 다양한 모색을 했다. 해방 후 임화는 전시체제가 조선인 사이에 ‘조선어, 예술성, 합리정신’을 지키기 위한 ‘공동전선’이 존재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9</sup> 반파시즘과 민족문화의 연동이라는 20세기 동시대성의 표현이었다.

### 3.3. 토리노, 원산, 울산의 동시대성

1910년 무렵 토리노 피아트의 파업은 자본 측이 촉발한 계급투쟁이었다. 1929년 원산 총파업 역시 지역 노동단체인 원산노동연합회를 무력화하려는 자본가 측의 도발로 일어났다. 토리노에는 아넬리라는 걸출한 자본가가 있었지만, 일본 통치 아래 식민지 조선에서 민족 자본가의 활동 반경은 넓지 않았다. 원산의 조선인 자본가는 일본인 자본가와 조선총독부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 사이에 끼인 존재였다. 시종일관 모호한 태도를 취하다 결국 일본인 대자본가의 이해에 끌려 가는 모습을 보였다.<sup>10</sup> 식민지적 특수성이었다.

자본은 항상 노동과 대면하여 자신의 전략을 국지적이거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수립하고 실행한다. 예컨대 공장 주변에 노동자 주거 지구를 조성

8 장문석(경희대)(2009), 「출판기획자 임화와 학예사라는 문제들」, 『민족문학사연구』 41.

9 홍종욱(2006), 「해방을 전후한 주체 형성의 기도: 좌파 지식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윤해동 외 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p. 258.

10 오미일(2016), 「1920~1930년대 초반 원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지역정치: 시영회와 시민협회의 선거 및 노동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75[오미일(2017), 『제국의 관문: 개항장 도시의 식민지 근대』, 선인에 재수록].

하는 전략은 이점이 컸지만, 노동자들을 집중시켜 의식화하고 전투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기도 했다(p. 41). 토리노의 노동운동을 뒷받침한 노동자 집단 주거에 대한 언급이다. 원산에서도 노동자들은 도시 북쪽에 자리 잡은 집단 주거지를 경제 공동체 삼아 결속을 다졌다. 집단 주거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원산노동연합회 건물을 중심으로 뭉친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맞서 수개월간 파업을 이끌어 갔다.<sup>11</sup>

양 지역의 20세기적 동시대성은 한국이 해방되고 공업화가 이루어지자 더 뚜렷해졌다. 1970년대 10년간 이어진 토리노의 ‘영구갈등’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울산에 1980년대 말 이후 노동자 대투쟁과 그 유산이 있었다. 토리노에서는 공장평의회가 공장을 일종의 해방구로 만들고 조립 라인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했다. 울산에서도 노조가 조립 라인을 따라 ‘올려치기’를 하며 자율적으로 휴식 시간을 확보했다. 울산의 노동자 집단 거주도 파업 투쟁을 뒷받침하는 토대였다.

토리노에서도 울산에서도 노동 우위의 시대는 저물었다. 토리노에서는 로봇의 활용, 포스트 포드주의적 유연 생산 체제 도입으로 공장평의회의 힘이 약해졌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노동은 시민의 지지를 잃었고 1980년 ‘침묵의 가을’은 ‘뜨거운 가을’이래 노동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연대 의식을 잃은 울산의 노동운동은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이라고 평가된다.<sup>12</sup> 1980~1983년에 피아트 해고 노동자 중 300명 이상이 자살했다(p. 189). 한국에서는 2009년 쌍용자동차 총파업 이후 해고 노동자 수십 명이 자살하는 비극이 있었다.

토리노에서는 약 100년 전에 빈민으로부터 솟아 나온 노동자가 다시

11 현명호(2021), 「원산총파업의 공간적 전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3.

12 유형근(2022),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산지니. 울산 노동운동이 연대 의식을 잃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저자 유형근 님과 필자의 북토크 참조(2023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저자와의 대화 2[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https://www.youtube.com/watch?v=OIHdv77AX\\_A](https://www.youtube.com/watch?v=OIHdv77AX_A)).

빈민 속으로 묻혀들어가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p. 26). 몰티투도 즉 다중은 앞서 살핀 대로 지방주의와 포폴리즘의 원천이 되지만, 새로운 저항의 토대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예컨대 민주노총은 여성 조합원을 늘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섭하는 등 ‘자유’를 얻기 위한 새로운 저항을 조직하고 있다.<sup>13</sup>

#### 4. 다시 기억에서 역사로

무엇보다 서구 학자 책의 번역이 아닌 한국인 학자의 연구로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기쁨이 크다. 한국의 서양사 연구의 도달점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생각된다. 저자 장문석은 이번 책과 관계있는 단거만으로도 『피아트와 파시즘』(지식의 풍경, 2009), 『파시즘』(책세상, 2010), 『역사가들』(역사비평사, 2010), 『민족주의』(책세상, 2010), 『자본주의 길들이기』(창비, 2016) 등을 내었다. 『토리노 멜랑콜리』에서 20세기 소용돌이의 역사를 잘 읽히는 문체로 요령 있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토리노 멜랑콜리』는 그저 말랑말랑한 이야기책이 아니다. 저자는 역사가 트라베르소를 원용하여 “투쟁의 기억들을 자유의 역사로 변환하는 작업”에 나서자고 제안한다(p. 201). 한국 학계에서도 역사가 내셔널리즘의 시녀가 되어 권선징악에 동원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한 반성 위에 명망 있는 역사학자가 출선하여 ‘역사에서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을 주창했다.<sup>14</sup> 역사학의 효용이 의심 받는 상황에서 『토리노 멜랑콜리』는 다시 한번

13 2023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저자와의 대화 2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https://www.youtube.com/watch?v=OIHdv77AX\\_A](https://www.youtube.com/watch?v=OIHdv77AX_A)); 장석준(2023), 「자동차, 노동운동, 그리고 ‘자유’의 도시 토리노와 울산」, 『프레시안』 2023.4.25.

14 임지현(2019), 『기억 전쟁』, 휴머니스트; 임지현 외(2022), 『역사에서 기억으로: 침묵당한 목소리를 불러내다』, 진실의 힘.

기억에서 역사로 전환을 주창하며, 민족 및 국가를 홀대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종속되지 않는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핵심은 멜랑콜리다. 트라베르소는 좌파 멜랑콜리의 창조성에 주목하고, 역사학자들이 ‘목격자’이자 ‘망명자’라는 이중적 위치에서 한편으로 상실을 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투성을 회복하여 기억을 역사로 다시 쓰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p. 201). 이 대목에서 켄 로치의 영화 〈나의 올드 오크 The Old Oak〉(2023)를 떠올렸다. 사라져 가는 민족과 사회의 고유성을 애도함으로써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야말로 역사학의 본연이 아닐까. 이 책에서 토리노 사람들의 자유와 덕성을 기린 이유도 같은 데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디미트로프, G. M.(1987), 김대건 편역, 『통일전선연구: 반과시즘 통일전선에 대하여』, 거름.
- 서경식(2018), 최재혁 역, 『나의 이탈리아 인문 기행』, 반비.
- 서경식(2006), 박광현 역, 『시대의 증언자 뿌리모 레미를 찾아서』, 창비.
- 신주백 편저(1989),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 연구 I: 국내 공산주의운동 자료편』, 새길.
- 오미일(2017), 『제국의 관문: 개항장 도시의 식민지 근대』, 선인.
- 오미일(2016), 「1920~1930년대 초반 원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지역정치: 시영회와 시민협회의 선거 및 노동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75.
- 유형근(2022),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산지니.
- 임지현(2019), 『기억 전쟁』, 휴머니스트.
- 임지현 외(2022), 『역사에서 기억으로: 침묵당한 목소리를 불러내다』, 진실의 힘.
- 장문석(경희대)(2009), 「출판기획자 임화와 학예사라는 문제들」, 『민족문학사연구』 41.
- 장석준(2023), 「자동차, 노동운동, 그리고 ‘자유’의 도시 토리노와 울산」, 『프레시안』 2023.4.25.
- 현명호(2021), 「원산총파업의 공간적 전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3.
- 홍종욱(2020), 「반과시즘 인민전선론과 사회주의 운동의 식민지적 길」, 『역사와 현실』 118.

- 홍종욱(2017), 「일본 지식인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의 발견: 다케우치 요시미와 가지무라 히데키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25.
- 홍종욱(2006), 「해방을 전후한 주체 형성의 기도: 좌파 지식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윤해동 외 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 梶村秀樹(1992), 「朝鮮からみた明治維新」(1980), 『梶村秀樹著作集 第1巻 朝鮮史と日本人』, 明石書店,
- 2023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저자와의 대화 2[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https://www.youtube.com/watch?v=OIHdv77AX\\_A](https://www.youtube.com/watch?v=OIHdv77AX_A))

